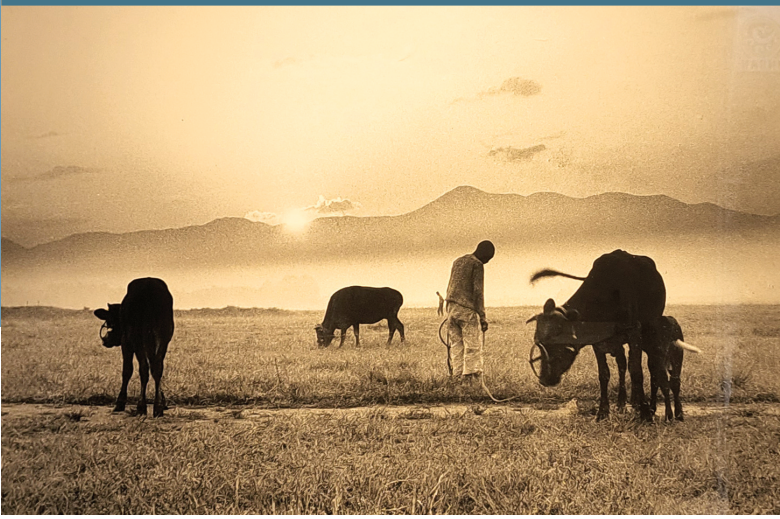




사진작가 최병오 유작전이 동구 미로센터에서 오는 26일까지 열린다. 1959년작 '초원의 아침' (전남대)과 80년 5월 도청 분수대에서 열린 시민들의 집회 장면 (오른쪽).

송계 최병오 유작전...26일까지 동구 미로센터
카메라·사진·필름 등...5·18 사진 구성 영상도

회화적 사진 미학...최병오 ‘고요한 기록’

사진 예술로 생을 조망한 한 예술가의 고요한 기록.

작가는 사진을 그림의 한 영역으로 생각했겠다. 회화적 감성과 시적인 분위가 배면에 드리워져 있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단상이다.

동구 미로센터에서 진행 중인 송계 최병오 유작전(오는 26일까지).

‘초원의 아침’을 주제로 펼쳐지고 있는 이번 사진전은 사진으로 삶과 시대를 응시했던 최병오 작가(1933~2001)의 다양한 유작을 볼 수 있는 자리다. 작품을 통해 삶과 예술, 진실과 기억, 사진과 회화 등을 겹쳐볼 수 있다.

혹자는 그의 작품을 가리켜 ‘회화적 사진의 미학’이라고 평한다. 사진 속에 회화적 감성과 시적 리얼리즘을 투영했다는 의미일 게다. 아마도 생전의 그는 끊임없이 피사체 너머의 진실을 추구했던 것 같다.

전시장에서는 창작 사진 13점 등 모두 25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최 작가가 렌즈로 포착한 대상은 농촌과 자연, 인간의 노동과 고요한 풍경이다.

사진의 기저에 흐르는 기본적인 정서는 서정성이다. 아련하면서도 애뜻한 감성이 깃든 작품들은 단순한 기록의 차원을 넘어선다. 예술과 기록의 경계를 확장한 작품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회화 같기도, 사진 같기도 하다.

어릴 때부터 미술에 소질이 있었던 그는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하지만 생활의 어려움이자 학업을 중단하기에 이른다. 한동안 그림과 사진 사이에서 진로를 두고 고민했던 그는 결국 사진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고등학교 시절 접했던 사진이 그의 삶의 행로를 결정한 것이다.

1966년 사진가들과 결성한 ‘D.P협회’를 매개로 작품 활동을 했으며 이후 30년 넘게 사진작업을 지속했다. 송 작가의 작품에서는 대부분의 풍경과 사람이 동일한 가치로 구현돼 있다.

‘이른 아침’은 지난 92년 곡성군 무정면 어느 시골길에서 포착한 풍경이다.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 지개를 지고 가로수 길 사이를 걸어가는 노인의 모습이다. 안개 너머를 향해 걸어가는 노인은 마치 생의 저편 미지를 향해 서서히 나아가는 듯하다. 마치 그것이 우리네 삶의 한 단면 같기도 하다.

1982년 작 ‘나무’는 지리산에서 찍은 작품이다. 세월의 모진 풍상을 겪고 벗겨벗은 고목으로 남은 나무는 안타까움과 한편으로 장엄함을 느끼게 한다. 존재의 무거움, 생의 위대함을 작가는 스러져 가는 늙은 나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관람객은 고목에도 새순이 돋고 푸른 물이 뚝뚝 떨어지던 초목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흑백으로 포착한 작품들은 수목화적 구도와 여백의미를 발현한다. 실루엣과 안개, 나무, 짐목 등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작품은 잃어버린 옛 향수와 원초적인 감성을 일깨운다.

한편으로 전시실에는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기록 필름과 사진도 전시돼 있다. 특히 오월 사진들을 모티브로 구성된 ‘미디어 영상전’은 그날의 진실을 아프게 보여준다. 분수대 앞, 금남로, 전남대병원 사거리 등의 모습은 역사적 기록으로 울림을 준다.



‘와불’ (화순 운주사, 년도 미상)

임종영 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은 송 작가에 대해 “오월의 거리에서 그는 카메라로 목격자가 되었고 사진으로 증언자가 되었다”고 평했다.

5월 관련 사진은 지난 2023년 유품을 정리하던 아들 최재영 작가에 의해 137컷의 사진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이를 토대로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기획전 ‘1980년 5월 단상’을 민주화운동기록관 전시실에서 개최된 바 있다.

미로센터 전시실에는 아카이브 자료들도 비치돼 있다. 필름카메라를 비롯해 필름, 현상메모, 수첩, 전시 기획 노트 등도 볼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남궁운 예술감독은 “최병오 작가의 사진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 카메라로 그린 회화라고 할 수 있다”며 “삶의 풍경과 역사적 현장을 모두 아우르고자 했던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차가운 얼음 녹아내린 곳

펭귄들의 춤이 펼쳐진다

ACC재단, 무용극 ‘남극에서 살아남기’...8월23~24일 어린이극장

오염된 환경에 맞서 생존을 모색하는 펭귄들의 상상력을 중심에 둔다. 점점 사라지는 빙하 위, 황제펭귄들은 알을 더 이상 품을 수 없게 되자 알을 공중에 띄우는 방식으로 진화한다.

차가운 얼음이 녹아내린 곳, 펭귄들의 새로운 여정이 춤으로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오는 8월 23~24일 어린이극장에서 어린이 무용공연 ‘남극에서 살아남기’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5 ACC 랫츠플레이”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지역 예술단체와의 상생을 통해 극장과 어린이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은 이 독특한 상상을 무용의 언어로 표현했다. 춤으로 말을 걸듯 펭귄들은 움직이고, 관객들은 그 움직임을 통해 자연의 위기

와 생명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 작품은 단순한 동물극을 넘어, 변화하는 환경에 창의적으로 적응하는 생명의 모습을 섬세하게 담아낸다.

특히 어린이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된 무대는 복잡한 설명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따라가게 만든다.

작품은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적응해 나가는 생명의 서사를 통해 어린이 관객들에게 감동과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 예정이다.

ACC재단 어린이콘텐츠기획팀 오수환 담당은 “어린이들이 예술을 통해 환경과 생명, 공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1만5000원, ACC재단 누리집 예매. /창해원 기자 hey1@kwangju.co.kr



어린이 무용공연 ‘남극에서 살아남기’의 한 장면.

〈ACC재단 제공〉

청춘이 수놓은 여름

2025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29일~8월3일 보성·해남 등서 공연

해변과 숲, 마을과 광장이 예술의 무대로 변신한다. 청년예술가들의 자유롭고 감각적인 퍼포먼스가 여름빛 광주·전남 곳곳을 물들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 7월 공연이 오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보성과 해남 등 6개 지역에서 열린다.

첫 무대는 29일 보성 문덕면 종합생물관에서 시작된다.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잔잔한 실내 공연이 관객을 맞이한다. 이어 31일에는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숲속의 자연을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기며 음악을 감상하는 ‘힐링 피크닉 콘서트’가 열린다. 8월 1일에는 해남 송호마을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여름 저녁 라이브 공연도 마련됐다.



지난 6월 나주 청춘마이크 무대에 오른 ‘히어로댄스컬’의 모습.

〈웨이브팩토리 제공〉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같은 날 보성 울포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해변 야의 무대다. 시원한 파도 소리와 어우러지는 낭만적인 여름밤의 콘서트에는 ‘그나데텔로코르렛’, ‘레브드집시’, ‘빠기고’, ‘조재희×최민석’, ‘플레이가온’ 등 5개 팀이 출연해 클래식부터 재즈, 대중음악,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안 하서면문화센터 마을 축제(7월 30일), 제주 표선해수욕장과 부안 변산해수욕장에서의 청량한 무대(8월 2일, 3일) 등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공연들이 이어진다.

올해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은 ‘모든 순간, 모든 곳이 무대! 청춘퍼레이드’를 슬로건으로, 일상 공간을 문화예술로 확장하는 거리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공연 관련 정보는 청춘마이크 전라·제주권 공식 SNS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춘마이크 운영사무국 최민희 PD는 “해변과 마을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들이 청년예술가에게는 도전의 무대, 관객에게는 새로운 문화 경험이 될 것”이라며 “무더운 여름날, 청춘의 열정이 전하는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국 영화관 관람료 6000원 할인...25일~10월 31일

방학과 휴가철, 한여름 특수를 기대하던 극장가가 좀처럼 열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영화 한 편에 1만5000원에 육박하는 관람료, 여기에 팝콘이나 음료를 곁들이면 몇 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관람객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는 반응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극장가 활성화를 위해 영화 관람료 할인 쿠폰 지급을 결정했다. 여름철 집체된 극장가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료 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2025년 영화관람 활성화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271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총 450만 장의 할인 쿠폰이 발급될 예정이다.

관람료 할인 쿠폰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뿐 아니라 광주극장, 광주독립영화관 등 지역 독립·예술영화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관람객 1인당 최대 4회까지, 회당 6000원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체감 부담을 크게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할인 정책이 집체된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관객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의 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자세한 사용 방법과 쿠폰 배분 일정은 오는 25일 이후 각 영화관 및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세계 예술 네트워크에서 광주 역할은?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간담회...오늘 ‘10년 후 그라운드’

21세기에 들어서 세계 각국 문화도시들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유수의 도시들이 자국의 문화예술을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다. 이와 맞물려 도시를 기반으로 예술 네트워크, 예술 플랫폼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는 세계 예술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광주의 국제 무대에서 예술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유럽의 예술기관과 레지던시 등을 매개로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대표 정현기)는 23일 오후 6시30분 양림동 ‘10년 후 그라운드’에서 간담회를 펼친다.

이번 간담회는 정 대표가 지난 5월 26일부터 45일간 독일을 비롯한 폴란드, 스페인 등 유럽 예술기관 초청으로 현지서 전개한 활동을 예술 관계자, 작가 등과 공유하는 자리다. 그는 뮌헨시 시청 라투스 갤러리 쿤스트할레에서 열린 국제포럼 ‘In Dialogue’에 연사로 참여했다. 또한 뮌헨의 ‘Platform’과 큐레이터 인턴십 프로그램 신설을 비롯해 벨기에 브뤼셀의 CAB, 스페인의 신설 레지던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유럽 기관들과 ‘아트 유니온’



Rathausgalerie 토크에서 발표 중인 정현기 대표. 〈호랑가시나무 제공〉

설립을 추진 중이며 오는 2026년 뮌헨에서 전시를 열 계획이다. 광주 작가들과 유럽 작가들이 참여 예술을 매개로 우리 시대의 화두인 공존, 지속가능성 등을 함께 탐색할 예정이다.

한편 정 대표는 “이번 간담회는 양림동이 향후 국제 예술 플랫폼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시간”이라며 “호랑가시나무창작소 등이 네트워크와 플랫폼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제시하고 싶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